Deeds of Cooperation Over Words of Contrition: How Germany Achieved Reconciliation with Neighbors while Japan did not

Walter F. Hatch (Colby College)

ABSTRACT

Germany has managed to achieve reconciliation with European neighbors it brutalized in the past, while Japan remains mired in tense relations with neighbors it once invaded or colonized in Northeast Asia. Why? I study paired cases: relations between Germany and France, along with thos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ld War allies now enjoying similarly high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relations between Germany and Poland, along with those between Japan and China (Cold War rivals with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case study results, I reject the conventional wisdom, which suggests that Germany apologized sufficiently while Japan has not. Instead, I argue that Germany showed a credible commitment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s by nesting itself in regional institutions of economic and security collaboration. Japan has demonstrated no such commitment – in part due to the constraints of its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참회의 말보다 협력의 실천 -독일은 이웃 국가와 화해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한 이유-

독일은 과거에 잔혹하게 침략했던 유럽 이웃 국가들과 화해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때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삼았던 이웃 국가들과 여전히 긴장된 관계에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와 일본과 한국(즉, 현재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누리고 있는 냉전의 동맹국)의 관계,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와 일본과 중국(즉, 발전 수준이 다른 냉전의 경쟁자)의 관계를 연구했다.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독일은 충분히 사과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통념을 거부한다. 대신 나는 독일이 지역 경제 및 안보 협력 기관에 둥지를 틀면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부분적으로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의 제약으로 인해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다.